

외래 돌발해충, 면밀한 예찰로 조기에 방제합시다!



▶ 외래 돌발해충이란?

- 갈색날개매미충, 꽃매미, 미국선녀벌레, 열대거세미나방 등 대륙편서풍 또는 국가별 교류 등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새롭게 유입된 해충
- 성충과 약충이 농작물의 즙액을 빨아먹거나 섭식하여 수세를 악화시키거나 고사시키며, 배설물은 그을음증상 등 2차 피해를 주어 수확물의 상품성을 떨어뜨림



갈색날개매미충



꽃매미



미국선녀벌레



열대거세미나방

※ 기후변화와 세계화에 따라 앞으로도 외래해충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



돌발해충 월동난(卵) 예찰조사 결과!

▶ 조사시기 : 2020. 2. 24. ~ 3. 20.

▶ 조사결과

- 갈색날개매미충(23개 시군 2,244ha 예찰)
 - 발생 : 14개 시군(김천, 영주, 영양 등) 51.2ha(농경지 42.4, 산림지 등 8.8)
- 꽃매미(23개 시군 2,239ha 예찰)
 - 발생 : 9개 시군(구미, 영천, 청송) 22.1ha(농경지 16.3, 산림지 등 5.8)

▶ 최근 3년간 월동난(卵) 발생 추이('18 ~ '20)

해충명	발생 시 · 군 수			월동난 발생면적(ha)								
				농경지			농경지 주변			합계		
	18년	19년	20년	18년	19년	20년	18년	19년	20년	18년	19년	20년
갈색날개매미충	5	8	14	12.6	22.7	42.4	4.9	14.2	8.8	17.5	36.9	51.2
꽃매미	9	8	9	9.4	0.8	16.3	6.6	8.2	5.8	16	9	22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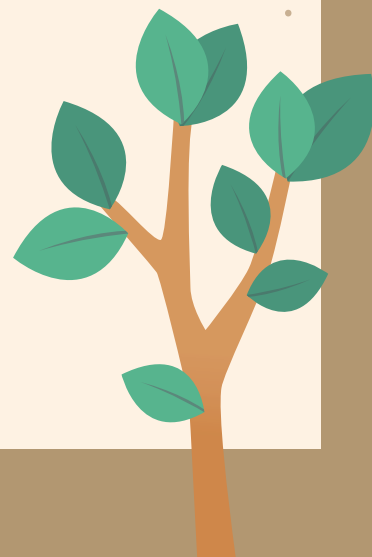
- 갈색날개매미충 전년 대비 40%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
- 꽃매미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였으나, 전년 대비 250% 급증
- (원인) 겨울철 고온 지속으로 해충의 세대 수 증가 및 산란량 증가

월동 돌발해충, 올해에는 작년보다 부화시기가 빨라진다!

- ▶ 월동 돌발해충의 최초 부화 관측 시기 : **전년 대비 5~10일 빨라질 것**

- ('19) 2019. 5. 5. ~ 5. 10. 전후 ⇒ ('20) 2020. 4. 25. ~ 5. 5. (예측)
- 지난 12월 ~ 1월까지 2개월간 평년보다 2.6℃ 높은 겨울철 고온기 지속
⇒ 발육영점온도 및 유효적산온도 충족으로 부화시기 5~10일 앞당겨질 듯

- ▶ 농작업 중 월동난과 산란가지 발견 시, 적극적으로 제거하여 개체 수 감소에 힘써주십시오!



새로운 외래 돌발(검역)해충, 열대거세미나방!



▶ 열대거세미나방(*Spodoptera frugiperda*)

- 식물방역법상 관리 해충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 · 아열대 지역이 원산
 - (분포) 16년 아프리카, 18년 인도 · 동남아시아, 19년 중국으로 급속하게 확산
 - (전파) 중국 남부에서 편서풍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비래하는 신규 외래해충
 - (기주) 옥수수, 수수, 벼 등 벼과 식물을 선호하나 배추과, 박과, 가지과도 가해
 - (생태) 밤에 기주식물의 지상부 가까운 잎이나 줄기에 100~300개의 알 산란
- ※ 알(3~5일)→애벌레(14~21일)→번데기(9~13일)→성충(12~14일)

▶ 작년 우리나라에서도 최초 발견

- (전국) 제주도 구좌 · 조천읍에서 국내 최초 발생('19.6.19.)
- (경북) 고령군 우곡면 발생('19.7.23.)

⇒ 겨울철 기온 10℃ 이하에서 월동이 불가능

하나, 지난 겨울 상대적 고온으로 월동 가능성 높음



열대거세미나방 알과 유충

※ 의심개체 발견 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또는 도 농업기술원에 신고해 주십시오!